“광양의 역사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요”

국립광주박물관 12월4일까지 ‘남도문화-광양’전

신석기·청동기·백제·고려시대 등 총 4부로 나눠

〈김뜨기 도구〉

국립광주박물관 전시관 입구에 있는 ‘중흥산성 쌍사자석등’을 감상하고 있는 관람객들의 모습.〈광주일보 자료〉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 전시실에 들어서면 ‘중흥산성 쌍사자석등’(국보 제103호)이 가장 먼저 관람객을 맞는다. 이 석등은 연꽃을 밟고 서 있는 두 마리의 사자가 서로 가슴을 맞대고 일어서서 앞발로 탑의 윗부분(화사석)을 맞들고 있는 형상이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사자의 몸에서는 무한한 기운이 느껴지고, 추녀 끝을 위로 살짝 치켜 올려 한껏 멋을 낸 통일신라시대의 대표적인 석등이다.

하지만 이 작품의 원래 고향이 광양이란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지난 1918년 광양의 백계산 옥룡사에 있던 이 석등은 일제에 의해 경복궁으로 옮겨졌다가 지금의 광주박물관에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광주박물관이 광주·전남 각 지역을 테마로 그곳의 문화와 유물을 총정리해 보여주는 ‘남도문화전’의 첫 전남권 전시로 광양을 선택한 것도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이 있었기 때문이다.

광주박물관은 오는 12월 4일까지 광양의 역사와 문화를 선보이는 ‘남도문화전Ⅱ-광양’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총 4부로 나눠 광양지역의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백제, 고려시대의 문화를 살펴본다.

제1부는 ‘빛光, 볕陽’를 주제로 이 지명이 실제로 새겨진 고려시대 묘지명과 함께 광양지역에서 사용된 현판 등을 소개한다. 또 섬진강과 남해가 만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태인도에서 김 양식을 최초로 창안했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 김을 말리던 ‘건장’을 재현·설치했다.

제2부는 최근 학술조사를 통해 확인된 구석기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발굴된 유적과 유물에 근거하여 문화의 변천과정을 조명한다. 광양은 백제 시대 마로현(馬老縣), 신라 시대 희양현(晞陽縣) 으로 불렸으며 고려시대부터 광양(光陽)이란 이름을 얻었다.

광양의 여러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석기와 함께 마로산성에서 출토된 기와, 토기, 철기, 청동유물 등을 이들 시기에 활발한 교류를 펼쳤던 광양의 옛 영광을 보여준다.

또 제3부는 광양의 불교와 유교문화를 소개한다. 국내 석등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중흥산성 쌍사자석등과 옥룡사 출토유물을 중심으로 함께 선각국사 도선(827~898년), 통진대사 경보(869~947년) 관련 자료를 전시한다.

이 밖에 제4부는 1900년대 격변기의 근대 역사·문화에서부터 현대에 이르는 오늘날의 광양을 조명한다. 구한말 우국지사로 이름을 떨친 매천 황현(1855~1910년)과 백운산을 거점으로 활동한 항일의병장 황병학(1876~1927년), 광주학생독립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김상환(1909~?)의 자료가 소개된다.

광주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해 광양의 유구한 역사와 풍요로운 문화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후에도 전남지역의 시군의 역사를 집대성하는 ‘남도문화전’을 지속적으로 열겠다”고 말했다. 문의 062-570-705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기러기 아빠의 고단한 현실

김경옥 첫번째 시집 ‘기러기 죽음’ 출간

사물에 대한 예리한 관찰력과 섬세한 묘사가 돋보이는 작품을 써온 김경옥(53·사진)씨가 첫 번째 시집 ‘기러기의 죽음’(문학들 펴냄)을 냈다. 2003년 신춘문예 등단 후 쓴 시들을 한데 모았다.

이번 시집에서 김 시인은 기러기 아빠의 고단하고 단절된 현실 세계를 노래한 표제작 ‘기러기의 죽음’ 등을 비롯해 일상의 현장을 재현하고 삶의 구체적인 풍경을 보여주는 60여 편의 시를 5부로 나눠 엮었다.

김 시인 “그것이 합리적이건 그렇지 않든 살점이 튀는 전쟁터보다 더 냉혹하고 급박한 일들이 무시로 일어난다”며 “삶을 쥐어짜서 육즙이 흘러내리는 시를, 치장이나 배경음악을 거둬낸 날것 그대로의 시를 쓰겠다”고 말했다.

해남 출생인 김 시인은 전남대, 광주대 대학원 문창과를 졸업하고 2004년 ‘불임꽃’외 5편으로 ‘시와사람’ 신인문학상을 수상했다. 땅끝문학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고즈넉한 가을 밤 피아노 연주

박수영 독주회, 오늘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박수영피아노독주회가 오는 10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연주 레퍼토리는 베토벤 초기 소나타에 속하는 베토벤 소나타 제14번 ‘월광’, 슈만이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지었다는 ‘어린이 정경’ 작품 15, 발라키레프의 ‘이슬라메이’다. 거쉰의 ‘랩소디 인 블루’를 들려 준다

박씨는 전남대와 이화여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파리 콘서바토리 인터내셔널에서 수학했다.

현재 목포대와 호신대에 출강하고 있으며 광주피아노아카데미와 전대 동문 피아니스트로 구성된 CN피아노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문의 010-4508-995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당금씨

서로 짐이 된 가족들… 이시대 현실 비판

푸른연극마을 ‘너무 놀라지 마라’ 13~16일 동산아트홀

대한민국 연극판에서 연출가 ‘박근형’이라는 이름은 최고의 블루칩으로 꼽힌다.

박해일·고수희 등이 출연했던 ‘청춘예찬’을 시작으로, ‘경숙이, 경숙아버지’ ‘선착장에서’ 등 그가 자신이 이끌고 있는 극단 ‘골목길’을 통해 무대에 올린 작품들은 언제나 화제의 중심이었다. 아픈 세상사를 들여다보는 작품이면서도 따뜻한 시선과 유머를 잃지 않고 있고, 반대로 웃음속에 날카로운 칼을 벼리고 있고 그의 연극을 보고 나면 한참 먹먹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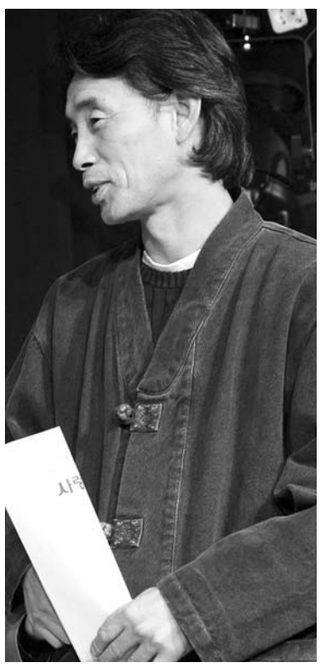
푸른연극마을이 무대에 올리는 ‘너무 놀라지 마라’ 역시 지난 2009년 동아연극상에서 3관왕을 차지하는 등 각종 연극제를 휩쓴 작품이다. 13~16일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

극의 주인공은 ‘비정상적인 가족’이다. 도박빚에 시달리다 집을 나간 어머니,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며 가계일을 책임지는 며느리, 영화배우를 꿈꾸며 밖으로만 나도는 큰 아들, 몇 년째 집밖에 나가지 않는 둘째 아들. 어느날 친구의 장례식에 다녀온 아버지가 ‘너무 놀라지 마라’는 말만 남긴 채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하지만 이 가족들에게는 장례 치를 생각도 하지 않은채 제 할일만 하기 바쁘다.

주인공 큰아들 부부역으로는 실제 부부 사이인 극단 대표 오성완씨와 이당금씨가 출연하며 김명대·이정교씨가 함께 맡았다. 오씨는 연출도 맡았다.

아버지는 유언장에 ‘너무 놀라지 마라’고 했지만 연극을 보는 동안 관객들은 놀라지 않을 수 있을까. 그 이상한 가족의 모습에 자신들의 모습을 오버랩시켜보면서. 문의 062-511-244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오성완씨

전남대 음악교육과 정기음악축제

내일 예술대학 3호관 예향홀서

전남대 음악교육과(학과장 정애련·사진) 교수와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정기음악축제가 11일 오후 7시 전남대예술대학 3호관 예향홀에서 열린다.

홍영일씨의 지휘로 ‘스와니 강’으로 알려진 ‘Old Folks at Home’, ‘도라지 꽃’ 등을 합창하며 축제의 시작을 알리고, 기타 앙상블팀이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Sunday Morning’을 부른다.

또 소프라노 정애련 교수는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중 ‘무지개 넘어’와 ‘베사메무초’를 선보이며 바리톤 남의천 교수는 ‘뺑덕어멈’과 ‘거문도 뱃노래’를 부른다.

이번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2부 순서에 마련된 ‘헤어스프레이’다. 뮤지컬 ‘헤어스프레이’는 1960년대 초 미국 볼티모어를 배경으로 뚱뚱한 몸매에 부풀린 머리를 한 십대 소녀 트레이시가 미스 헤어스프레이의 꿈을 이루는 과정을 담고 있다.

뮤지컬에 삽입된 19곡 가운데 ‘Good Morning Baltimore’ ‘I Can Hear the Bells’ ‘I know Where I’ve Been’ 등 14곡을 선곡, 50분 분량의 공연으로 각색했다. 전석 무료.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MG새마을금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새마을금고는 안전합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랑으로 건전하게 발전해온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는 튼튼한 재무구조와 완벽한 예금자보호제도 정착 등으로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믿음만이 고객에게 웃음을 드릴 수 있다는 새마을금고의 신념-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켜나가겠습니다.

새마을금고법에 규정된 완벽한 예금자보호제도가 있습니다

은행의 예금자보호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새마을금고는 1983년부터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지불준비금제도라는 또 하나의 안전장치를
마련 해놓고 있어 은행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원리금포함) 까지 예·적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부실요인 발생이 근본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일부 금융권 부실요인 중의 하나인 PF대출 자체의 취급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대형부실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뿐더러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서 신용정보 면에서의 우위성을 바탕으로
회원과 지역주민에게 가계자금 위주의 대출을 운영함으로써 부실채권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창립 이래 매년 이익금의 충실한 적립을 통하여 튼튼한 재무구조를 유지하여 예·적금 지급에 전혀 문제가
없으며, 회원의 믿음과 신뢰속에 나날이 성장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공적자금 지원없이 예금자를 보호해 왔습니다

지난 국내 경제위기(IMF구제금융) 당시 은행 등은 168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으로 예금자를 보호해 왔지만 새마을금고는
한 푼의 공적자금 지원 없이 건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그 동안 새마을금고 해산 등으로 예·적금을 지급받지 못한
예금자들에게 자체조성된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예·적금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새마을금고를 거래하는 예금자들에게는
전혀 피해가 없도록 하였습니다.